

모든 언어로 성경을 IN OTHER WORDS



이번 호 내용

그들의 손에 들려진 성경

우리 말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페루에서의 성경 봉헌식

오늘날 성경 번역 선교의
놀라운 특징 여섯 가지

성경 번역 사역의
중심에 있는 교회

세계 전역에서 지역 교회들이 성경 번역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 갑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교회들과 지역 사회 공동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위클리프 캐나다에게는 영광스런 일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페루에 세워진 성경번역 선교의 이정표, 동부 아프리카 케추아 언어 성경 전권 봉헌식을 기념합니다. 이는

20 년 간의 신실한 사역과 인내로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또한 성경번역 운동이 현지 교회의 리더십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80여 년 전 설립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강조해 볼 것입니다. 끝으로 캐나다 청년 단기 비전여행 팀이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여러 언어 공동체들이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보면서 깊이 감동받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목차

- 2 우리말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 6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 7 한번에 한 가지 필요씩
- 8 아이디어 (AIDIA)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
- 9 성경 번역의 파급 효과
- 10 함께하는 선교
- 11 성경 번역: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교회
- 12 단기 선교 장기적 영향
- 14 오늘날 성경 번역 특징
- 16 함께 기도해 주세요

배경 사진 제공:
나타샤 라미레스 (2, 6면),
루스 리처트 (11면),
헬렌 반 데 르 월트 (12면).
디자인: 카리 미테마

우리말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페루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성경전서 봉헌식

페루 관련 모든 이야기 및 사진: 루스 리처트

아침 8 시, 여러 먼 마을에서 오는 성도들과 외부 손님들을 위해 김이 모락 모락 나는 수프와 빵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축하 잔치에는 음식이 필수인 법. 맑은 국물 수프에는 얇게 썬 소곱창이 감자와 갖잡은 소고기 덩어리 사이에 은은하게 퍼져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온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성경전서 봉헌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들에게는 머리가 찌끈찌끈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해발 3,320 미터 안데스 산지. 페루 아푸리맥 주, 추키밤비아 마을의 케추아 교회 옥상의 야외 부엌에서 가디건과 두꺼운 치마를 입은 여성도님들이 교회 옥상에 있는 야외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바쁘게 오가며 멀리서 온 손님들 모두에게 빠짐 없이 음식을 대접합니다. 파란 그늘 천막 아래 웅기종기 모여있는 여러 그룹의 케추아 성도님들은 이곳보다 더 높은 고산지대 여러 마을에서 몇 시간씩 걸어온 분들입니다. 대부분 척박한 토양에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는 자급자족 농부들이어서, 자동차 같은 사치품은커녕 당나귀도 없어서, 두세 시간 이상씩 걸어서 온 것입니다.

20 년의 준비 기간

식사 시간이 끝나자 섬기던 리더들은 또 서둘러 최고의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좁은 계단을 통해 바로 아래 층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아이디어 사역자 디나 로하스와 분홍 솔더를 두른 셸디 키스페가 추키밤비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 봉헌식을 축하하고 있다.

교회 본당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각 마을 별로 앉았고, 맞춰 입은 의상으로 쉽게 공동체가 구분됩니다. 좌중에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인은 재빨리 치마에 화려한 리본을 붙여 단장을 마무리합니다. 봉헌식 시작 전의 다급한 모습들을 통해, 이분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오래 동안 기다려왔는지 엿보게 됩니다.

페루에서 성경번역 사역을 섬기는 위클리프의 동역 기관 아이디어에서는 지난 2021년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말로 신구약 전권 성경을 완역했지만, 인쇄 지연으로 인해 4 년의 긴 시간이 추가되었고, 이 봉헌식에 이르기까지 총 20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2004 년에 시행된 언어 조사였습니다. 이 언어의 사용 현황, 사용 인구, 성경 번역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루이스 목사의 여정

현재 아이디어의 책임자인 루이스 세르반테스 목사는 당시 초기 조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때 언어 조사가 이런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볼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20 년 만에 우리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는 그의 민족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루이스 목사의 마음의 언어,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말로 말씀하신다는 확증입니다. 루이스 목사는 신약성경 번역 사역자로 섬기다가, 구약성경 번역이 시작될 때, 아디디아의 전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음에도, 오늘은 축하의 날입니다.

루이스는 추키밤비아 교회의 지도자인 어원 팔로미노와 함께 강단 쪽으로 걸어나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렇게 봉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성경을
줘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어원 팔로미노, 지역 교회 지도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어윈 팔로미노를 비롯한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새 성경을 받은 후 회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케추아 문화는 다소곳하고 조용하며 품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한 것을 축하할 때 격한 춤이나 큰 함성이 아니라, 깊은 감정과 경건한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백 오 십 명의 목소리가 고요한 산 공기를 뚫고 영혼을 울리는 고음의 선율로 퍼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케추아 말로 된 찬송가를 손에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말을 하십니다!”

각 교회별 참가자들이 앞에 나서서 찬양과 축하의 말을 전체 참석자들과 나눕니다. 한 사역자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케추아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그룹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온 분들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차가 없어서 오늘은 많은 교우분들 중 일부만 참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

아이디아 디렉터 루이스 목사는 각지에서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을 강단 앞으로 모두 초대합니다. 캐나다, 콜롬비아, 일본에서 방문 중인 목회자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 페루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케추아 신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막중한데, 이제 그들은 교회에 전할 하나님의 완전한 가르침 (성경 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아 스탬들이 각 교회의 사역자들의 손에 케추아어 성경 한 권씩을 건넵니다. 검은색 표지에 붉은색 테두리, 보호용 비닐 포장으로 감싼 두툼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어윈 목사가 모임을 인도하며 기도 중에 외쳤습니다.

봉헌식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해 예배당 뒤편으로 모여듭니다. 어떤 이는 화장실에 줄을 서고,

또 다른 분들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모두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자 비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여정

봉헌식은 마침내 그 시작이었던 아침 식사와 같이, 점심 식사로 마무리 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감자와 파스타, 그리고 앞서 갓잡은 소의 남은 부위가 제공됩니다. 사람들은 알갱이가 큰 페루 옥수수 초콜로를 담은 그릇을 돌려가며 나눠먹고, 각자의 공동체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동부 아푸리멕 케추아 말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삶의 변혁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



아이디아는 2025 년에 총 여덟 차례 아푸리멕 전역에서 성경전서 봉헌식 행사를 치렀습니다. 많은 아푸리멕 케추아 교회 성도들이 멀리 떨어진 한 중심 지역에 모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이디아는 각 지역 별로 방문하며 봉헌식을 열었습니다. 아이디아 사역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통해 그들의 말로 말씀해주시는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 루이스
세르반테스 목사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번역 사역자,
번역 자문위원, 목사:
어떤 역할이든 오스카
산체스의 목적은
단 하나,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봉헌식 예배 중에 회중 찬양에 맞춰
페루 전통 악기 차랑고를
연주하는 오스카.

성경 봉헌식 예배 중 대부분 오스카 산체스는 회중들의 찬양에 맞춰 조용히 차랑고를 뜯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디든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그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25년 전 십대 시절부터 케추아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으며, 음악으로 예배를 돕기 위해 산간 외딴 마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어 사용자인 그는 후에 성경 번역 팀에 합류했고 지역 교회 목회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집중 훈련을 마치고 성경번역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오스카는 자문위원, 멘토, 목사, 남편, 아버지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공동체에 만연한 폭력과 중독 문제와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스카는 또한 사람들이 자기 모어로 (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참 소망을 얻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변혁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는 소망입니다.

예배 인도자, 목사, 성경번역 사역자, 자문위원인 오스카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사는 날까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자문위원으로, 목사로, 혹은 다른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



한번에 한 가지 필요씩

아이디아 사역자 노에미 로하스는 어떤 특이한 부탁에도 늘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차량 뒷좌석에서 노에미는 산 위쪽에 사는 가족에게 데려다 줄 어린 양을 부드럽게 안고 있다.

거칠게 들판을 뛰어다니던 양은 결국 농부에게 잡혀 다리가 묶인 채 미쯔비시 SUV 뒷좌석에 있는 노에미 로하스의 무릎 위에 올려집니다. 노에미가 양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양은 곧 조용해 집니다.

노에미는 양치기도 아니고, 이 양도 그녀의 양이 아닙니다. 다만 이 양을 기다리고 있는 산 위에 사는 한 가족에게 이 양을 데려다 줄 뿐입니다. 아주 드문 기회지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긴 시간 산을 올라가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노에미가 하는 이런 일이 바로 아이디아 사역자들이 보통 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 그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이와 같은 실질적인 사랑의 태도가 바로 노에미가 지난 16 년

동안 아이디아와 함께 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성경 활용 및 문해사역 경력이 있지만, 현재의 사역 초점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도로가 없는 지역에 무거운 장비를 들고 몇 시간씩 걸어가서 외딴 아프리카 지역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간단한 정수 시스템 사용 및 유지 관리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질병과 기생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워킹샷 때마다, 깨끗한 물을 영적인 진리에 적용하며,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이라고,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말합니다.

물 공급 프로그램 확대

최근 노에미는 아마존 분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남부 및 북부 파스타자 케추아 지역 사회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땅을 양계 파서 지하수를 얻는데,

깨끗한 물인 것 같지만 위험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질병이 흔합니다.

노에미가 말합니다. “그분들이 요청했어요. ‘우리들도 [깨끗한 물 공급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저희에게도 그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세요!’”

깨끗한 물만이 아닙니다. 의료, 교육, 깊은 영적 치유 등 엄청난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에 이끌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필요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노에미는 항상 다음 단계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삶에서 비롯된 소망이 그녀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나아갑니다. 한번에 한 공동체, 한 워킹샷, 한 마리 양씩. ■

아이디아는 현재 페루의 아홉 개 언어 공동체에서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6개 언어 공동체에서의 번역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New projects
- Ongoing projects



아이디아 성경번역 프로젝트



5

4

성경 번역 사역의 파급 효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로 전해질 때
사람들의 삶이 변혁되는 이야기들을
매일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분
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
은 문제로 가득했
지만, 그분께서
저를 변화시키셨
습니다.”
- 후안, 페루

Individual

1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떻게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 하
는가 하는 것입
니다.”
- 아라냐, 동남
아시아

지역 교회들은 예배,
가르침과 제자 훈련이
모여 성장함에 따라
지역 교회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새롭게
되고 사랑과, 선한
가치관과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2



Family

3

Church

“믿는 자들은 이제 지역구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 누르 목사, 서아시아

Community

문해력과 성경을
통해 해당 민족에게
존엄성, 평화, 발전이
주어집니다.

“우리 집들은 모두 불에 타
무너졌지만, 마을은 용서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 피우스 목사, 카메룬

각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으로
세계 교회를
풍요롭게
합니다

“캐나다 오지-크리 원주민의 말,
‘카아키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
씀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 매튜, 캐나다

사진 제공:
나타샤 라미레즈 (1),
앨런 후드 (2, 3, 5),
데이지 킬렐, 위클리프 글
로벌 얼라이언스 (4).

선교 현장에서 함께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언어 성경 봉헌식에서
교회 일치의 기쁨을 발견하는 토론토 출신 은퇴 부부의 이야기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에 성미경 권사는 자주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토론토에서 남편과 사업 운영에 바빴었지만, 세상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늘 관심이 끌렸습니다. 먼 선교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기도하고 헌금하는 데서, 또한 선교 동원 사역에 동참하면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성 권사는 [직접 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침 은퇴에 맞춰, 부부는 페루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성경 봉헌식에 소수의 후원자 그룹으로 동참해달라는 초대 받습니다. 성 권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페루에 올 수 있는 큰 기 회였어요 ...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죠.”

상대적으로 성 장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로서 그는 변수 관리와 효율성 증대에 익숙했는데, 외딴 지역에 여행하는 것은 그 원칙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결심이 결국 그를 설득했고, 그는 “잘 따라가서 아내를 지켜줘야 했죠!”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추키밤비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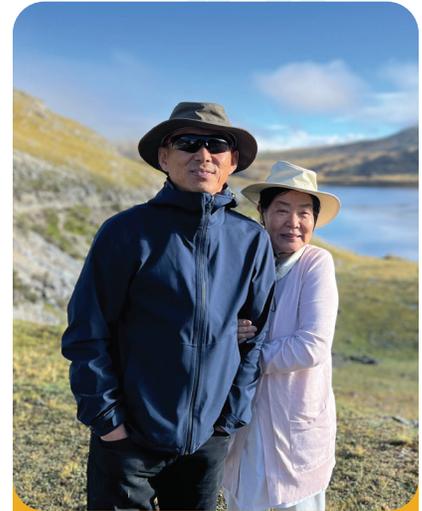
페루 쿠스코 공항에서부터 성경 봉헌식이 열리는 추키밤비아까지 가는 길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구불구불대는 산악 지형 도로를 따라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여행은 위가 뒤틀리는 듯했고, 일행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거친 아푸리맥 지역은 대도시 토론토에 있는 성 장로 가족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들이는 케추아 사람들의 모습은 이 모든 힘든 여정을 잊게 했습니다. 교회 본당에 모인 케추아 사람들과 해외에서 온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기도하며, 서로 다른 언어와 목소리를 합하여, 케추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찬양했습니다. 성 장로 부부는 이처럼 여러 다른 곳에서 온 신자들의 연합과 일치에 깊이 감동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은 목적, 즉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라고 성 장로는 말했습니다.

성 권사에게 이 여정은 오래 동안 성경번역 사역 현장을 보고 싶어했던 소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동역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



토론토에서 온 성철영 장로와 성미경 권사 부부: 추키밤비아에서 열리는 성경 봉헌 예배 참석차 가는 길목, 고산 지대 호숫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함께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 위클리프 후원자
성미경 권사

사진 제공: 이규준 선교사

성경 번역: 교회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역

위클리프 캐나다는 교회가 성경 번역 사역의 중심에 서있음을 믿습니다

존 추,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수석 부대표

알프레드 히치콧은 한때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장편 영화는 감독이 신이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는 신이 감독이다.”

유머는 제쳐두고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감독이 아니라 모든 실재하는 것들의 저자요, 이야기꾼이요,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시는” 분이요 (사 36:10),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 139:10).

위클리프 캐나다의 사명은 성경 번역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위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겸손과 용기와 그분의 서사에 대한 충실함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 운동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 재정립

지난 2 년 간 위클리프 캐나다는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 번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기도하면서, 정체성을 재정립했습니다.

2024년 가을, 위클리프 국제 연대 이사회가 성경 번역 선교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역이라고 선언한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클리프 캐나다는 이 선언에 깊이 공감했고, 많은 내용들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역 교회와 파트너들과의 모든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지역 교회가 성경 번역 사역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임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클리프 캐나다가 그나마 최선을 다해온 것이 있다면, 지역 교회를 대신하여 신실하게 이 사역을 맡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실수는, 교회의 전문성과 역량의 한계를 우려한 나머지, 교회를 지원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 오히려 교회를 우회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 즉 지역교회가 주변부가 아닌 중심이 되는 장에 들어섭니다.

교회를 중심에 두기

세계 모든 교회를 중심에 둔다는 것은 우리가 캐나다 본국에서 사역하던 해외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그곳의

지역 교회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 비전, 성경 번역 사역 역량이 증대되도록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운 일정과 기대에 맞추기 위해 교회를 제쳐두고 위클리프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편하게 보일 때이라도, 지역 교회의 성숙도와 부르침에 맞추어 겸손히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페루 동부 아푸리멕 케추아 성경 봉헌 행사는 이 원칙들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현지 교회와 긴밀히 연결된 페루 현지 단체인 아이디어가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교회의 비전과 필요를 반영하고, 그래서 현지 교회들은 번역된 성경을 큰 기대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캐나다는 아이디어와 함께 걸어가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번역 선교 이야기는 지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경험할 것이며,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한 기쁨으로. ■

단기 선교, 장기적 영향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힘을 경험한 캐나다 여섯 청년들의 이야기

글: 더그 록하트 / 사진: 헬렌 반 데어 발트

단기 선교 기회를 고려하는 젊은이들에게 위클리프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교 단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여, 많은 이들이 위클리프가 언어학자나, 번역사역자, 또는 문해사역 전문가만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클리프의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되면, 언어학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술과 훈련을 통해 성경 번역 사역이 진전되는 일에 의미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아마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봄, 여섯 명의 캐나다 청년들이 위클리프 캐나다 선교사 두 명과 함께 '변화'(transformation)를 경험했습니다.



캐나다 단기 사역 팀은 캐나다의 동역자들이 제공한 150 대의 오디오 성경 재생기를 “힘바” 언어 성경 번역팀에 전달했다. 많은 힘바 사람들이 아직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오디오 성경 재생기 통해서만 그들의 말로 된 성경에 접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아프리카 남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단기 팀은 매우 다른 두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는 활기찬 케이프타운의 캄스(Kaaps) 언어 공동체였고, 다른 하나는 이웃 나라 나미비아의 반유목민 힘바(Himba) 언어 공동체였습니다.

이 두 언어 프로젝트가 단기 사역을 위해 선정된 이유는, 성경이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창의적인 전략을 적용했고,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 코치(동원사역자)인 레이첼 뉘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에서 적실하게 역사하는 것을, 즉 모든 사람과 언어와 문화에 다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단기 팀원들도 이 두 언어 공동체를 섬기며 보낸 날들이 특히 기억에 남고, 각자의 신앙 여정에 의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에서 온 심 스티븐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캄스 민족과 힘바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성경 말씀을 듣고 반응하더라구요.”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한 말씀

캄스 민족 성경 번역 사역자들은 음악에 재능이 많습니다. 그들은 2022년부터 수십 편의 시편 말씀을 구절 및 문자로 번역했고, 이를 바탕으로 성경 노래들을 작곡해서, 케이프타운 주변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했습니다. 단기 사역 팀은 두 차례 공연에 합류하여 연극과 말씀 낭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캄스 성경 번역 팀은 올해 정식으로 구약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접한 나미비아에서는 힘바 민족을 위한 성경번역이 꾸준히 진행 중이며, 특히 구절 번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번역 팀은 오디오 성경을 녹음해서, 많은 힘바족 사람들이 집에서나, 혹은 소, 염소, 양을 돌보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는 성경이 녹음되어 있는 오디오 기기가 몇 대밖에 없습니다. 이 태양광 충전식 특수 오디오 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 위클리프 단기 팀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힘바 마을에 이 기기 150 대를 전달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랭리 출신의 팀원 줄리 스미스는 말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는지 (Scripture Engagement)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The Alive in Kaaps’ 팀이 케이프타운 캄스 언어 사용 지역에서 자기 말로 번역한 성경 노래를 공연하고 있다. 캐나다 단기 팀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춤 추고, 기도하며, 간증을 나누고, 이후 수프와 빵을 나눠주었다.



케이프타운 고등학교에서 열린 ‘Alive in Kaaps’ 전도 공연에 케이프타운의 고등 학생들이 신이 나서 반응하고 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독특한 방식으로 전해지는지도요. ...”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참가자들은 성경 번역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켈거리 출신 에이든 에어는 성경 활용 사역 경험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제 자신의 삶에도 이와 같은 성경 활용 (사역)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맛볼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들도 배웠습니다.” ■

성경 번역의 현주소

오늘날 성경 번역의 놀라운 특징들

브렌다 피트

성경 번역 운동의 현주소: 위클리프 캐나다의 사명은 변함없지만, 1942년 창립 이후 성경 번역 사역의 방법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오늘날 성경 번역 선교의 놀라운 특징 여섯 가지를 함께 알아봅니다.

1 현지인 주도

단연코 현대 성경 번역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운동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를 받는 현지 공동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선교 단체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주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여 성경 번역 사역자들과 그들의 지역 공동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점차 조력자 및 협력자 역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번역 선교사들이 직접 번역을 수행하거나 다른 언어 관련 사업을 주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위클리프 캐나다의 사역 목표는 현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 기술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접근하기 쉬워진 성경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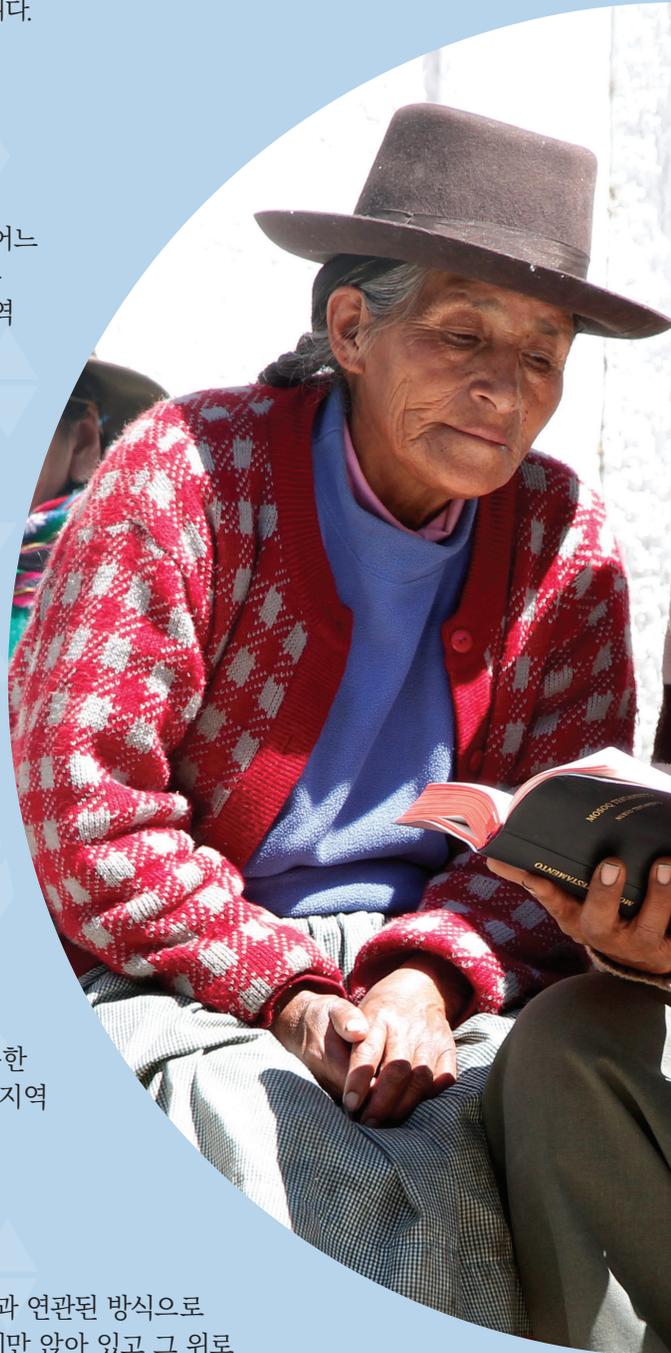
문해 도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블룸(Bloom)에서부터 AI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는 성경 번역 프로그램, 심지어 디지털 아바타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은 번역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성경 공부를 비롯해 문해력 향상 도구, 건강 정보 등 유용한 성경 기반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바로 공유하는 등 실용적인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가 성경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3

절대적으로 중요한 성경 활용 사역

성경 번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동체는 일상생활과 연관된 방식으로 성경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책장에만 앉아 있고 그 위로 먼지만 쌓일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 활용은 성경 오디오 녹음, 시편을 바탕으로 한 음악 창작, 성경 공부 자료나 상담 자료 제작, 심지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한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남은 사역은 가장 어려운 지역에

성경 번역 사역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언어는 약 700개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성경 번역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역들은 대개 오지이고,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의 기도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제공:
나타 샤 라미레즈
(중앙 큰 사진),
앨런 후드 (왼쪽 작은
사진), 루스 리처트
(가운데 작은 사진),
데릴 프라이젠
(오른쪽 작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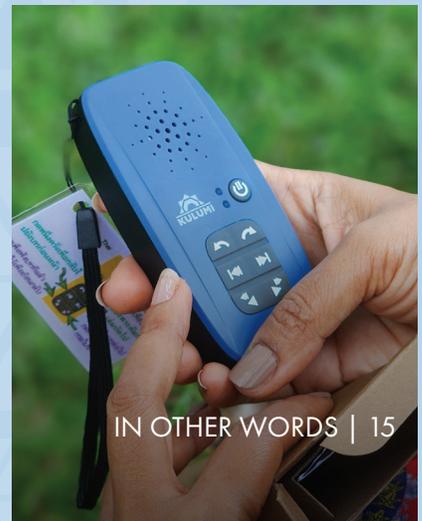
5 청각 장애인 공동체를 위한 수어 번역

전 세계 약 400여 개의 수화 언어 중 단 하나, 오직 미국 수어만이 친구약 성경 전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청각장애인 중 거의 98%가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글을 읽을 수 없으며 수화 교육 자료에 접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단체들은 수화로 된 성경의 영상 버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6 언어는 정체성이며,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위클리프 단체들은 소리뿐만 존재하는 언어들을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역팀들은 성경과 함께 사진, 문해 도구, 이야기들을 제작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문화 유산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돕고, 이러한 강한 정체성 의식은 종종 일상생활에서 더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캐나다는 일부 캐나다 원주민 언어들을 포함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소수 언어 공동체들이 자기 말을 보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페루 아반카이 소재 교회에서 케추아어 예배를 마친 후, 한 케추아 부부가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어 신약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이 이야기들에 소개된 성경 번역 사역을 포함한 위클 리프 캐나다 프로젝트를 후원하시려면 wycliffe.ca/give 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관한 더 많은 기사, 사진 및 동영상은 stories.wycliffe.ca 로 방문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안나 스클라
사진: 루스 리처트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어 성경 번역이 완료되었고, 수많은 공동체가 성경 봉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서를 접함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변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여 교인들을 제자삼고 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더욱 깊어지도록,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성장하며, 주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 하도록 도와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시며 주님 눈에 소중히 여김 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ycliffe

4316 10 St NE, Calgary, AB, T2E 6K3

wycliffe.ca | info@wycliffe.ca

Tel: (403) 250-5411 (ext. 332, Diaspora)

Toll free: 1-800-463-1143